

# 작년 국제회의 하루 2건 688회... '마이스' 메카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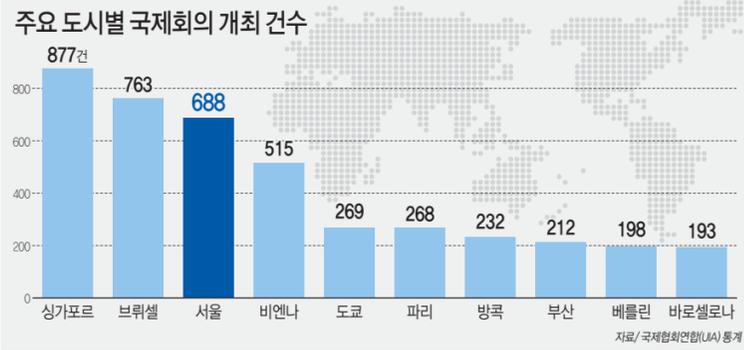
(MICE)

전년비 31% ↑ ... 세계 3위 기록  
국가별 실적 2년 연속 1위 유지

서울시가 마이스(MICE) 메카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이 3년 연속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제회의가 많은 도시로 선정된 것이 그 이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국제협회연합(UA)이 발표한 국제회의 통계 보고서에서 지난해 서울이 전년 대비 31%(162건) 상승한 688건으로 세계 3위의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역대 최대 성과다. 또한 세계 3위 기록은 2015년,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통계 결과는 지난해 사드(THAA



D)갈등 및 북핵 위기 등 대외적 환경으로 인한 위기요인에도 서울 MICE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인 MICE 도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주요 도시별 순위는 1위 싱가포르

(877건), 2위 브뤼셀(763건), 3위 서울(688건), 4위 비엔나(515건), 5위 도쿄(269건) 순이다. 부산의 경우 세계 8위로 총 212건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실적도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2017년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1297건을 기록했다. 전체 국제회의 중 53%(688건)가 서울에서 이뤄졌다. 국가별 순위 2, 3위로는 싱가포르와 벨기에가 꼽혔으며 각각 877건, 81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회연합은 1960년 이래로 57년간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발표해 온 권위있는 단체다. UA에서 인정하는 국제회의는 국제기구가 주최 혹은 후원하는 회의(1일 이상, 50명 이상이 참가)이거나 국내 단체나 국제기구의 국내지부가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해외 참가자가 40% 이상이며 참가국이 5개국 이상인 국제회의(3일 이상, 300명 이상)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안준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해외

경쟁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MICE 인프라와 대외적인 환경위험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세계적인 MICE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세계적인 MICE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미래 MICE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 마이스(MICE)란?

마이스(MICE)는 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 & Event)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신조어다.

## '담배없는 직장' 서울시가 앞장선다

서울시, 300인 이상 7개 기업 대상  
환경진단·건강증진 프로 등 진행

서울시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과 '금연문화' 조성 프로젝트를 앞으로 6개월 동안 추진한다. 해당 업체는 LG사이언스파크, 문배철강, 엔시큐어, 아이센스, 제주항공, 한국코퍼레이션, 한독 등이다.

서울시는 '담배없는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금연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기업체 대상 금연문화조성사업이다. 이날 서울시와 참여기업은 이번 프로젝트의 협약식을 맺었다. 참여기업은 서울시의 컨설팅과 금연프

로그램을 지원받으며 금연의사결정기구를 운영, 전 임직원이 함께 담배 없는 사업장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장별 금연캠페인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환경진단, 조직의 금연문화조성과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및 근로자 건강증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7개 참여기업은 회사 대표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은 사업장으로, 금연 인센티브, 금연펀드, CEO 금연응원 메시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금연회식비 지원, 금연휴가, 금연지지 동아리 등 다각도 지원으로 기업 금연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LG사이언스파크는 소재생산기술연구기업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음주, 흡연을 선택하는데 이번 금연문화조성을 계기로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

획이다. 문배철강(주)는 최근 CEO의 금연성공으로 임직원들의 금연과 건강증진에 대한 의지가 높아져 이번 사업을 통해 정착될 금연문화가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모두 향상하는 윈윈 전략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엔시큐어(주)는 IT·보안서비스기업으로 흡연하는 직원이 많아 강력한 금연의지로 참여한다. 최근 한 직원이 어렵게 금연에 성공해 재흡연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동참해 금연문화 확립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근로자 흡연은 기업 운영에서 사업장 유지 및 관리비 상승과 연관이 있고 흡연 관련 산업폐해나 화재 발생요인 증가에 따라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장 기반 금연문화조성 사업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만큼 더 많은 사업장에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단오, 창포물에 머리 감아요"

단오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여름맞이, 단오' 세시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국내최대 책 잔치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내일부터 5일간 강남 코엑스에서  
국내 234개사·32개국 참여

국내 최대규모 책 잔치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확장'으로, 책을 대하는 엄숙주의와 선입관을 허물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책을 포괄해 나가자는 취지다. 일본의 라이트노벨을 재조명하고, 북한교과서 등을 접할 수 있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주빈국 체코관에서는 체코 만화가 등의 작품 전시와 함께 공연, 워크숍 등이 계획돼 있다.

'책의 해'인 올해 24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국내관에 234개사, 국제관에 주빈국인 체코를 비롯한 프랑스·미국·일본·중국 등 32개국 91개사가 참여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했다. 작가 배수아와 배우 장동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등장한 로봇 다이아나(DIANA)가 올해 도서전의 홍보모델로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특별기획전으로는 '라이트노벨 페스티벌', '전자출판', '잡지의 시대' 등이 있다. 일본의 유명 '라이트노벨' 글 작가와 삽화가를 초청해 사인회와 원화 전시회, 강연회를 열고, 다양한 전자출판물 전시와 함께 문학, 예술,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등 여러 분야의 잡지 40여 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서브컬처에서 태어난 소설 종류의 하나로, 가벼운 하위문화로 여겨진 라이트노벨을 이번 도서전을 통해 새롭게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더불어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중 10종의 신간이 출간되어 첫선을 보이고, 도서전 기간 중에만 판매를 진행한다. 국내 판타지 소설의 거장 이영도 작가가 10년 만에 내는 신간 '오버 더 초이스'를 필두로 '역사의 역사'(유시민), '만든 눈물, 참은 눈물'(이승우), '정유정, 이야기를 이야기하다'(정유정·지승호) 등이 있다. 이번 도서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책도 있다. 서점을 주제로 한 여성 소설가 11명의 잠문집인 한정관 '서점들'이 도서전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책을 구입한 관람객에 한해 이벤트 상품으로 증정된다.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에 힘입어 향후 남북한 출판문화 교류를 위해 북한 교과서 등 북한 도서 30여 종을 전시하는 '평화' 특별전도 마련된다.

올해 도서전의 주빈국은 체코공화국이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프라하의 봄 50주년, 체코공화국 설립 25주년을 맞아 공연과 워크숍, 작가 사인회 등이 열린다. 체코관에서는 현대 체코 아동 도서 일러스트레이터와 만화작가 12명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12개의 세계'와 체코 만화사와 시대상을 요약한 '그 당시에, 각기 다른 곳에서'를 전시해 체코공화국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독서회 회복과 독서출판 생태계 강화를 위해 25년 만에 '책의 해'가 지정된 만큼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의 역할과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출판사와 저자, 독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참여형 책문화 축제를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나아가 건강한 출판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심폐소생술 실습 모습.

/서울시

## 여름철 재난 대비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

서울시, CPR 등 이론+실습 교육

서울시가 여름철 재난을 대비해 시민 안전파수꾼을 양성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초기대응을 위한 시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안전의식, 위기상황판단,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 CPR 등 응급처치로 구성됐다.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교육과 실습 활동이 진행된다.

교육은 18일 은평구를 시작으로 6~7월 동작구, 노원구 등 8개 자치구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열린다. 참여를 희

망하는 개인·단체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협력사업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10만 시민 안전파수꾼 양성을 목표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 내 안전문화 확산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화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최근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며 "평소 지역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해 재난을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hjk1@

/김현경 기자